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66호 1판 (음력 5월 11일)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2순환도로 '혈세' 3분의 1 줄였다

광주시-맥쿼리 '1구간 MRG' 폐지 협상 타결
향후 12년간 지원금 예산 1200억원 절감 기대

맥쿼리, 지산IC 등 100억 부담

광주시가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아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기존 운영비 보장방식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재정 지원금 문제 협상을 타결했다. 〈관련기사 3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을 변경하기로 사업주체인 광주순환도로(주)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면 미달분 전액을 지원하는 MRG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못 미치는 액수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예상되는 향후 재정지원액을 36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맥쿼리 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를 9월까지 개통하고,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한 지산 IC신설도 추진키로 해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시민편의시설 확충 효과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1구간 사업시행조건을 MRG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 측과 사업 재구조화 합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검토 등을 거쳐 올 10월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지난 2001~2015년까지 보전한 액수는 2041억원으로, 이 가운데 1190억원은 업체 측에 지급됐으며 851억원은 지급 보류됐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 보류액을 순차적으로 지급(이자면제)하고 변경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내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도 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1구간 실제 통행량이 크게 못미쳐 보전액이 커져 맥쿼리 측에 수입보장 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11년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 맥쿼리 측은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양측의 변경 합의에 따라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맥쿼리 측도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계류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정절감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판단돼 실익 없는 소송전보다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맥쿼리 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 등 편의시설도 확충돼 재정절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이 된 구간은 두암나들목에서 소태나들목까지의 제2순환도로 1구간인 5.67km로 민자 1731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10만대 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4만4000여대에 불과해 재정 보전금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 재정보전 구조 변경 비교

구 분	기 존	변 경
방 식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투자비 보전
내 용	실제운영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 미달시 재정지원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시 재정지원
市 부담액 (2016~2028)	3600억 수준	2400억 수준 (절감액 1200억원)

※ 맥쿼리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 구축(9월개통), 지산 IC신설(2018년 개통예정) 등 100억원 상당 시민편의시설 확충

광주시는 최근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제2순환도로 1구간(소태~두암) 재정지원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사업자인 맥쿼리측과 전격 합의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 요금소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탄광 폐광 위기 넘겼다

정부, 단계적 감산·정원 감축
노조 파업 철회…갈등 불씨 남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도 폐광설에 휩싸였던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폐광 위기는 넘겼지만 단계적인 감산과 정원 감축을 맞게 됐다.

석탄공사 노조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수용해 '총파업 철회, 업무복귀'를 밝히면서 갈등은 수습 국면이지만, 생산량 및 정원 감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탓에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폐광·폐업이 검토됐던 화순탄광, 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자본잠식과 적자운영이 심각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하고 신규채용 중단을 비롯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연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초 정부의 석탄공사 폐업과 화순탄광 폐광 방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조는 물론 화순지역 전체가 크게 술렁이며 반발했었다. 탄광이 문을 닫을 경우 당장 500여명의 광부가 설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석탄노조 측도 정부안이 후퇴(폐업·폐광→감산 및 인원감축)한 이유도 노조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발한데서 찾고 있다. 여기에 석탄이 국토에서 생산되는 사실상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석탄공사를 지키려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막대한 부채 탓에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가 한 발씩 양보한 것도 영향을 준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2016 청소년 축제'
금남로가 발칵 뒤집힌다

7월 23일(토) 문화전당 5·18민주광장 특설무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립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7월 23일(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제5회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밴드, 댄스, 풍물 등 경연과 3:3 농구대회 등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기밴드 및 공연팀의 특별 공연도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대학의 입학 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3일 (토) 오전 10시~오후 7시
■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특설무대
■ 경연부문 : 밴드, 댄스, 풍물, 기타 공연, 3:3 농구대회
■ 참가자격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 참가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 참 가 비 : 무료
■ 주 최 : 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光州日報社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나주 등 10개 혁신도시 단체장
여야 3당에 법제화 당론 촉구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 소재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35%)을 법제화하는데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전국 혁신도시는 나주시와 전북 전주시, 완주군, 대구 동구, 부산 영도구, 강원도 원주시 등 10곳에 건설됐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14일 전주시청에서 나주시, 전주시, 완주군, 김천시, 대구 동구 등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을 결정했다.

이들 단체장은 "청년 실업률 12.5%, 청년 실업자 120만 명 시대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으로 지방 대학 인재 유출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8일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7월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3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광주·전남·북 단체장 상생 합의 ▶2면
전남 결핵 백신 대란 ▶6면
카페 필라소피 20주년 콘서트 ▶1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